

익산시, 환경친화도시 조성 박차

장점마을 환경문제 적극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시정 '환경중심' 개편...민간 환경감시단도 운영

익산시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정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발암물질 논란을 빚은 장점마을에 환경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발표한 익산시 환경친화도시 추진단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장점마을과 해동환경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을 설치해 환경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한다. 추진단은 부서별 협업을 통해 친환경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참여팀을 중심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시민참여팀은 12월까지 6팀,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기존 시 홈페이지에 지역의 환경 분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도 내년에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악취나 미세먼지 등의 환경현안과 추진 중인 환경정책, 지도점검 현황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앞서 시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6개 사업장에 폐쇄명령과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

며 나머지 7개 사업장에도 고발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단속과 함께 환경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시켜 영세 업체들이 방지시설과 악취저감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모든 정책을 환경 중심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지난 29일 내장산생태탐방원이 3년여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개원식을 가졌다. <정읍시 제공>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

총사업비 127억원 투입 생활관·야외공연장 등 갖춰

정읍시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협업으로 유치한 '내장산생태탐방원'을 개원했다.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쌍암동)에 위치한 내장산생태탐방원은 총사업비 127억원이 투입됐다. 생태탐방원은 지상 2층 총면적 4783㎡로 생활관 19실, 강당, 강의실, 야외공연

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탐방원은 연간 120만명이 방문하는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돼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됐다. 주변에는 내장호와 단풍생태공원, 명상 숲, 조각공원 등 힐링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탐방원은 정읍사와 조선헌조실록 보존

터인 용굴암, 국가생태 관광지 솔티마을 등 생태·문화·자연 등을 활용해 자연생태와 환경에 대한 교육·체험을 하는 생태관광의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소방관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유프로그램과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자유학년제 진로체험과 인성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탐방원은 이달부터 가족과 동호회 등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은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치유농업' 테마 공원조성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99억원 확보

순창군의 '치유농업'을 테마로 하는 공원 조성 사업이 전북도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99억을 확보했다. 군은 내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군은 건강, 장수, 발효의 고장답게 국내 치유농업을 선도하며 농촌테마공원을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인계면 실랜드 인근에 조성 중이다.

2015년부터 20여 곳의 농장과 함께 치유농업을 준비해 교육, 컨설팅, 브랜드 개발, 플랫폼 구축 등 치유농장 운영을 위한 체계적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사업화가 가능한 선도 농가 9곳을 중심으로 치유농업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고 농촌치유자원을 활용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치유농업 테마공원의 핵심은 군의 중점사업인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치유농업 견인을 위한 민간 중간조직 활성화 차원의 치유농업지원센터를 비롯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고창군, 마을 주민 보호구역사업 추진

도로미끄럼방지 포장·야간조명 시설 설치 개선 등

고창군이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보호구역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군은 마을 보호구역 정비를 통해 고창읍 중거리당산로와 석정로, 대산면

소재지, 부안면 소재지에 대한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야간조명 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개선한다. 군은 이들 지역에 국비 등 총 사업비 16

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앞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과속방지 및 교통사고차대 등에 대한 시야확보 대책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20년 1월까지 전북도의 승인을 얻은 뒤 실시계획을 확정, 2월에 공사에 착

수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수고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사업을 통해 개선 가능한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목포형무소 합장비 '문화유산' 됐다

시, 조례 규정 지정...일제강점기 수감 중 사망자 추모비

목포시 산정동 산 58-2번지에 위치한 '목포형무소합장비' (사진)가 목포시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 목포시는 목포시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개최 결과, 목포형무소 합장비가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비(碑)는 일제강점기(1917~1933년)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합장비'다. 비의 앞면에는 합장비(合葬碑)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大正六年 大正九年 昭和二年 昭和八年(대정육년 대정구년 소화이년 소화팔년)'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문으로 살펴볼 때 1917년부터 193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승만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장은 "지난 1989년 목포교도소가 무안군 일로읍으로 이전한 이후 목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포형무소 관련 유적"이라며 "시 문화유



산으로 지정돼야 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광양 알루미늄 공장 9일 기공식 주민 반대 불구 건립 본격 착수

세종산단 8만2627㎡에 내년까지 1000억원 투입

광양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이 지연됐던 알루미늄 제조 공장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간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광양알루미늄은 9일 세종산단단지(사진)에서 정복호 광양시장과 김갑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연다. 광양 알루미늄은 기공식을 시작으로 세종산단 8만2627㎡ 부지에 내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알루미늄 공장을 건립한다.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foil)을 생산하고 남은 조각과 알루미늄 '괴'를 녹여서 알루미늄 덩어리인 슬라브를 만들 계획이다. 공장은 내년 8월쯤 문을 열 예정이다. 중국 밌타이그룹은 지난해 12월 세종산단 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알루미늄 공장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에서 '알루미늄 공장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밌타이그룹은 주민을 설득해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



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5월 광양시와 광양알루미늄, 세종주민협의회 등 4자 합의를 이끌어 1년여간 끌어온 갈등을 매듭지었다. '4자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도 세종산단 인근의 순천 해룡면 주민 등이 공장 입주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어렵게 주민과 합의를 끌어낸 만큼 공장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대화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억 원의 45세 이상 서민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 45세 이상 조달은행 소액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 저금리 저이자 생활비는 지역별 맞춤형 대출 (신용 평가)
- 저이자 소상공인 경영활동비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